

 금융위원회		<div>보도자료</div>			 금융감독원	
보도		2017.11.2.(목) 조간		배포	2017.11.1(수)	
책 임 자		금융위 보험과장 손 주 형(02-2100-2960)		담 당 자		
		금감원 보험감리실장 이 창 욱(02-3145-8220)				
				태 현 수 사무관 (02-2100-2962) 권 기 순 사무관 (02-2100-2963)		
				김 봉 균 팀 장 (02-3145-8231)		

제 목 :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

-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의 융·복합 활성화 -

- ① 보험 계약자 등의 건강관리노력 및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지급(환급)하는 '건강증진형 보험상품' 개발·판매 기준 마련
- ②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다양한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그간 업계가 제기한 애로사항 및 법령 적용상 불확실성 해소
- ③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보험소비자 피해 및 모집질서 문란 등 부작용이 없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도 강화

1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필요성

- 최근 전세계적으로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부상

* OECD국가의 노인층(65세 이상) 인구 비율 : (1990년)12.0% → (2016년)17.0%
전세계 당뇨병 환자수(WHO) : (1980년) 1.1억명 → (2014년) 4.2억명

- 우리나라도 고령화, 만성질환 등으로 'GDP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'이 OECD 국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**

* 노인층(국민의 13.1%)의 의료비 지출 비중 : ('15)36.8% → ('20)45.6%(건보공단)
만성질환자(국민의 28.5%)의 의료비 지출 비중 : ('15)36.2%(건보공단)

** 최근 15년간('02~'16) GDP대비 의료비 비중 증가폭 : (OECD평균)1.6%p, (한국)3.2%p [약 2배]
최근 3년간('14~'16) GDP대비 의료비 비중 증가폭 : (OECD평균)0.1%p, (한국)0.8%p [약 8배]

- 이에 따라 국민의 관심은 '기대수명이 아닌 건강수명 연장(health span)', '치료보다 사전 예방(cure → care)' 등으로 변화

- 이러한 사회적 수요 증가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이 결합되면서, 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

- 특히, 의료기관뿐 아니라, IT시스템, S/W, 센서·장비 제조사 등 다양한 新산업이 융복합된 스마트 헬스케어가 빠르게 확장

* (제조업) : 바이오 센서, 웨어러블 기기, (S/W) : 앱(App) 개발, 보안프로그램
(서비스) : 건강 상담, 운동프로그램 코칭, (데이터) : 빅데이터 분석, DB 관리

- 해외 주요국에서는 사회·경제적 변화에 따라 '보험'과 '헬스케어'가 결합된 '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'이 활성화되는 추세

※ (참고) 해외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사례

- ☑ [일본, AXA Japan] 보험사가 모바일 App과 연동하여 계약자의 건강정보를 수집·관리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여, 목표 달성시 보험료 할인
- ☑ [남아공, 디스커버리 - 英푸르텐셜, AIA, 中평안보험] 계약자가 디스커버리사의 건강관리 프로그램(Vitality)에 가입하고 건강등급을 부여받은 후, 계약자의 노력으로 건강 등급이 개선되면, ①보험료 할인, ②보험금 증액, ③캐시백 등의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
- ☑ [중국, 中안보협] 당뇨 환자를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·판매함과 동시에, 혈당 수치 등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서비스 제공

-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❶ 계약자는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'건강수명'을 연장하고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,

- ❷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질병발생 확률, 조기 사망확률 등 사고위험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이 하락하며,

* 보험연구원 연구결과 : 당뇨예방 노력을 30년간 지속시 사회적 편익은 비용의 약 2.5배

- ❸ 경제 전체적으로는 헬스케어 산업 등 新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창출*, 창업 활성화 등 경기 활성화에 기여

* 헬스케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('14년, 한은) : 19.2명/10억원(全산업 평균 12.9명)
헬스케어 산업의 고용유발계수('14년, 한은) : 16.7명/10억원(全산업 평균 8.7명)

◆ 국내 보험산업에서도 '보험'과 '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' 등이 결합된 건강증진형 혁신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할 필요

⇒ 혁신적 新상품 개발·판매와 관련한 구체적 적용기준 마련

2 추진 경과

- 금융위·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공동 T/F를 구성('17.4월)하고, 『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·판매 가이드라인』을 마련
- 보험업계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혁신상품의 경우, 특별이익 제공 금지(법 제98조), 기초서류 작성기준(법 제128조의3) 등 현행 법령의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신상품 개발에 애로
- 이에 따라, 그간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혁신상품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걷어내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

3 가이드라인 주요내용

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의 5대 기본 원칙

- ① 보험계약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**보험사고 위험이 감소하면, 그 위험 감소의 혜택은 계약자에게 충분히 환급**
- ② 건강관리 노력에 따른 미래 보험료 할인, 보험금 증액 부분을 **부담하게 초기 보험료에 가산(보험료만 인상)하는 상품은 제한**
- ③ **보험가입 자체가 어렵거나, 초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는 보험계약자(유병자 등)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상품 구조는 적극 활성화**
- ④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서 보험료·보험금 등이 달라지는 것은 **보험계약의 중요사항**으로서, 보험모집(판매)시 반드시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함
- ⑤ 보험계약자의 **사고위험 감소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금품** 등을 보험모집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**특별이익에 해당되어 금지**

① (적용대상) 질병·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과 관련된 상품

- 자동차보험, 재해사망보험 등 계약자(피보험자)의 건강관리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상품은 제외
- 저축성보험과 질병과 관련된 보험이 혼합된 상품의 경우에는 질병·사망 보장에 한정하여 적용
- 기존 상품에도 '특약'의 형태로 보험료 할인혜택 등을 제공 가능

② (제공되는 편익)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, 보험료 할인, 보험금 증액, 캐쉬백, 포인트, 건강관련 서비스 등 광범위하게 허용

- 보험소비자가 건강관리 노력·성과에 대해 다양한 현금 및 비현금성 혜택을 선택 가능

- * ① 건강관리기기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
- ② 보험료 할인 또는 환급
- ③ 보험가입금액의 상향 또는 보험금의 증액
- ④ 건강 관련 서비스의 제공(의료법 등 현행 법령상 허용된 범위에 한함)
- ⑤ 보험회사 업무제휴를 체결한 업체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포인트 지급 등

- 다만, 소비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기본취지에 맞게 보장내용, 건강관리 등과 무관한 물품 제공은 제한

* 예시 : 주유쿠폰, 식기세트 등 건강관리와 무관한 비현금성 혜택은 제외

※ (참고) 건강관리기기 직접 제공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한 이유

- 보험사는 기기의 파손·분실, 계약의 중도 해지시 기기 회수 등과 관련한 분쟁 및 소비자 민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웨어러블기기의 직접 제공에 소극적
- 보험사가 특정 회사의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하는 경우에 불공정 시장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

⇒ 웨어러블기기의 직접 제공은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가이드라인에 반영

③ (건강관리 노력 측정) 건강관리 노력·성과를 측정·관리하는 지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준으로 한정

-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란 국내외 보험통계, 학술·연구자료 등에서 계약자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을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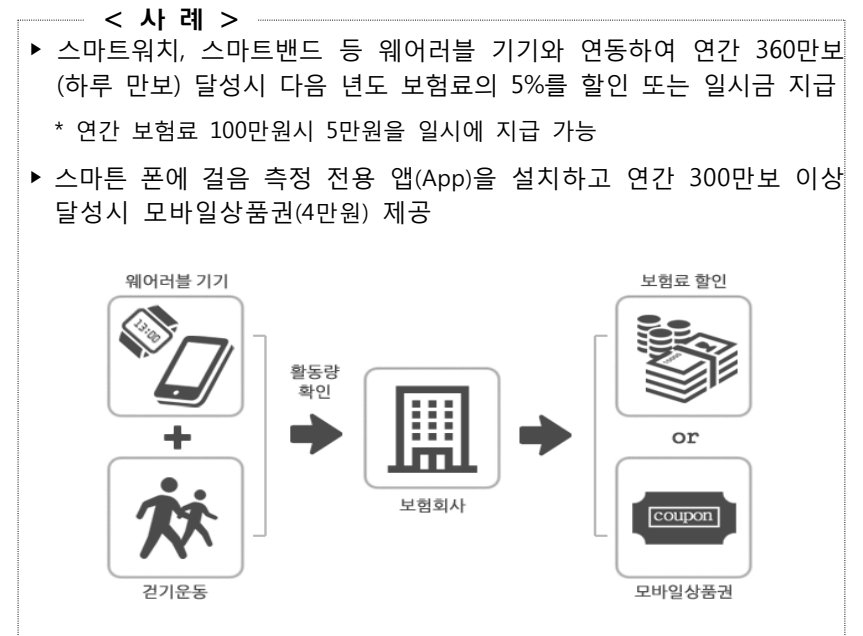
* 예: (해외통계) 당뇨병 환자가 꾸준히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시 의료비 21.2% 절감 (연구자료) 일주일에 9마일(1일 30분)이상 걸으면 사망률 22%감소, 혈관질환 18% 감소 (연구자료) 당화혈색소 수치를 7%이하로 관리시 미세혈관합병증 발병률 37% 하락

- ④ **(기초서류 반영)** 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·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편익이 제공되는 기준은 기초서류에 명시
- **(보험료 등)** 건강관리 노력 이전에 부과되는 초기 보험료, 미래 할인되는 보험료, 보험금 증액 등은 통계적으로 산출
 - 다만, 혁신상품 도입 초기에 통계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, 통계수집 차원에서 최초 5년간 한시적으로 사업비 범위내에서 보험료 할인, 보험금 증액 등 가능
 - **(건강관리 노력 측정)** 보험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 및 성과를 주기적으로 측정·관리하는 방법을 명시
 - 특히, 건강관리 노력을 측정·관리하는 기준을 부득이 변경해야 하는 경우*, 그 변경절차·기준 등을 미리 설정
- * 예 : 걸음수 측정 앱(app) 개발 회사의 도산 웨어러블 기기 파손 등의 경우 그에 준하여 대체할 수 있는 건강관리 노력 측정수단 및 대체방법 등을 기초서류에 명시
- **(편익 제공절차 및 방법)**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편익의 주요내용, 제공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
- 제공되는 보험편익의 내용 등을 부득이 변경해야 하는 경우*, 그 변경절차·기준 등을 미리 설정
- * 예 : 연간 일평균 8천보를 걸으면, 헬스클럽 무료이용권을 제공했으나, 헬스클럽 파산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, 대체하는 보험편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명시
- ⑥ **(내부통제)** 부실한 보험상품 설계 및 과도한 출혈경쟁 등으로 보험사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법령에 따라 내부통제절차 마련
- 보험회사는 선임제리사 책임 하에 '건강증진형 보험상품'에 대한 손익분석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손익분석 실시 필요
- ⑦ **(상품신고)** '건강증진형 보험상품'의 경우에도 자율적인 상품개발 및 판매가 가능
- * 통계수집 등을 위해 사업비 범위내에서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, 이미 신고한 상품과 동일유형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등은 별도 사전신고 불필요
- 다만, 현행 법령(승 별표6)에 따라 피보험자의 건강관리노력에 따른 위험 구분단위 자체를 새롭게 적용하는 新상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신고가 필요

- ⑧ **(소비자 보호 기준)**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·판매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기준을 명시
- 건강관리노력 등을 측정하는 기준,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의 내용·방법은 약관의 중요사항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 존재
 - 건강관리노력에 대해 제공하는 편익 유형에 '보험료 할인'을 포함토록 하여, 활용도가 낮은 서비스만 제공하여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방지
 - * 계약자의 부담 증가 없이, 비현금성 보험편익과 현금성 보험편익을 혼합하여 건강관리노력의 수행 정도 및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
 - 보험사는 '건강관리 노력 측정방법', '제공되는 편익의 종류 및 내용'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계약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주기적 안내

4 가이드라인 시행 후 출시가능한 상품 예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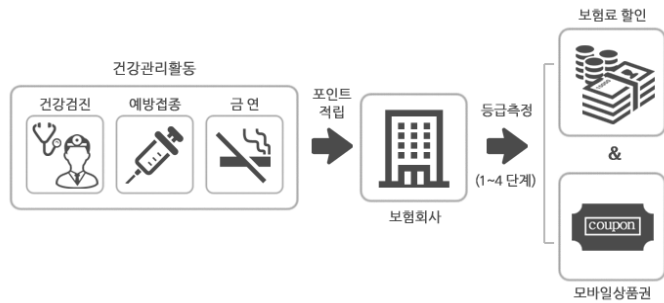
- ① **(웨어러블 기기)** 각종 스마트기기(웨어러블 기기)를 통해 일정기준 이상으로 신체 활동시 보험료 할인 또는 일시금을 제공



- ② (건강관리 프로그램) 제휴 헬스케어 회사의 건강관리프로그램에 따라 건강지표 달성시마다 건강관리 서비스,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

< 사례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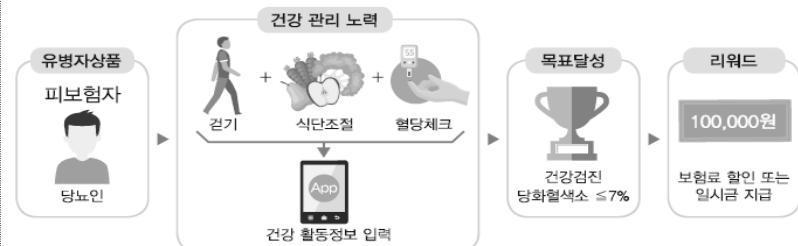
- ▶ 건강관리 활동별* 등급(4단계)에 따라 0%~15% 보험료 할인 및 현금·상품권 4천원~1만원, 등급 상승시 현금·상품권 1만원~4만원 지급 등
- * 건강검진 수치, 금연성공 여부, 예방접종 여부, 숙면측정, 식습관 등



- ③ (유병자 상품) 만성질환 등을 보장하면서 관련 질환·질병지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면 보험료 할인(환급)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

< 사례 >

- ▶ 당뇨질환자의 합병증을 보장하는 상품에서 관련 지수(당화혈색소*)를 일정수준(예:7.0% 또는 7.5%) 이하로 관리하면 보험료 할인 또는 일정기간의 보험료 할인 분을 일시금(예: 매년 10만원)으로 지급
- * 당화혈색소 : 혈액 속 포도당이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Hb(혈색소)에 결합하여 만들어진 당화헤모글로빈을 말하며, 이를 검사하여 평균 혈당 농도를 측정
- ※ 건강관리에 따른 위험감소 효과를 반영하는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상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예정



5 향후 계획

- ① 법령의 해석·적용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,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『가이드라인』으로 제정·운영
 - 금융규제민원포털(금감원 홈페이지) 등에 가이드라인을 공고(20일간)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시행
- ② 예상치 못한 보험업계 애로사항 발생시 가이드라인 개정 또는 유권해석(비조치 의견서) 등을 통해 지속 보완
- ③ 다양한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기술이 접목되는 他 상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
 -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물 인터넷(IoT)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혁신상품*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보아가며 가이드라인을 지속 확대

* 예 : 누수감지센서, 도난방지센서 등 IoT 기술을 활용하여 화재위험, 도난위험 등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면 화재보험, 재산종합보험 보험료 할인 등 제공

< 별첨 >

1.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주요내용
2.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(案)

공공누리 공공저작을 자유이용하락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넓게 듣겠습니다
바르게 알라겠습니다